

# 김영구 전남건설협회장 ‘금탑산업훈장’ 영예 ‘건설산업 불공정 제도 개선’ 공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김영구 회장(세진종합건설 대표이사)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을 열고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김영구회장에 금탑산업훈장을 영예의 수상을 받았다.

김영구 회장은 “지역건설업체가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건설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산업간 융복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원사의 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영구 회장은 32년간 도로, 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 시공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김영구 회장은 1986년 건설업에 첫발을 내딛고 10여년간 건설회사 임·직원으로 현장을 경험한 뒤 1996년 세진종합건설 대표가 됐다. 산업단지, 상하수도, 하수관거택지개발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학교시설, 위생매립지 등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김영구 회장이 2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총리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고 있다.

## 지역경제 발전·건설산업 발전 제도개선 앞장 친환경 시공문화 선도·서민주택 보급 기여

지역 편의시설 제공에도 힘썼다. 녹색제품 및 환경 친화적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등 친환경 시공문화를 선도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사업에 참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불확실성이 커진 건설환경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최근 4년 평균 300여명의 지역 건설인력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됐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완벽 시공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설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등 기업의 가치를 높여왔다. 김영구 회장은 안전한 건설현장 관리를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삼았다. 현장의 품질 계획과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중대 재해 근절과 안전보건 경영체계 확립 등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하도급 대금 100% 현금결제, 적정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도입 등 동반성장에도 힘썼다.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2012년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에 취임했고, 2015년부터 광주·전남 건설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 결성을 주도해 회장을 맡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눔과 사회공헌에 솔선수범 했다.

한편 건설의 날은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형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쇠산하고 투명·상생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결의하는 ‘건설인의 청렴사도 구현을 위한 다짐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0여년간 이룩한 건설산업의 업적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건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미애 기자



김명술 회장은 21일 민선 7기 준비 도정주요현안보고회에서 ‘벤처 정책 공약’을 김영록 전남도 도지사 당선자 전달했다.

## “벤처 기업간 교류체계 구축 절실”

### 광주·전남 벤처협회, 광주전남 당선인에 정책 제안

광주전남벤처기업이 기업 간 교류체계 형성과 멘토링 등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벤처기업연구소가 전국 7개 지회의 의견을 수렴을 토대로 구축한 ‘벤처정책 공약’을 오는 27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리는 제 4회 광주전남벤처포럼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술 회장은 21일 민선 7기 준비 도정주요현안보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 도지사 당선자 전달했다.

이 제안서에는 광주전남지회, 경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인천, 전북 7개 지회에서 바라는 6가지 공동정책사안과 광주전남지회 차원의 임원이 담은 2가지 정책 사안이 담겼다.

광주·전남지회의 임원은 ▲지역기반의 멘토링지원체계구축 ▲이·업종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플랫폼 구축 총 2가지다.

◇이·업종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 플랫폼

광주전남지역중소·벤처기업은 기업 간 정보 및 교류기회 부족 등의 사유로 교류체계가 형성되지 못한 실정으로 분석됐다.

이에 자동차용 헬스케어, 자동차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제품과 같이 이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이·업종 기업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자동차용 IoT 의료기기, 차량용 건강관리, 이동형 의료기기, 의료용 자동차 부품 등의 이·업종 간 시제품개발, 연구개발(R&D)사업 지원에 대한 요구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이·업종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 분석, 해외시장 사례,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정책 연구 지원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정책 제안서에는 총 7개 지회 공동정책인 ▲지역 하드웨어 벤처육성 ▲스마트부품 IoT 특화단지 조성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프리존 설립 ▲지역 벤처클러스터 조성 ▲지역엔젤투자 지원센터 구축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지원 및 빅데이터 연구소 설립으로 총 6가지가 담겨있다.

김명술 회장은 “벤처기업은 대한민국 저성장트랩 탈출과 중일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내 우수인재 이탈 가속화와 지방산업 경쟁력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을 통해 향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인 벤처기업협회가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 LH 용산지구 264호 입주자 모집

### 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 기회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 본부는 광주 용산지구 국민임대주택 26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22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다.

광주에서는 2013년 효천2 국민임대주택 이후 5년 만에 신규 공급한다.

광주 용산 국민임대주택은 동구 용산동 일원에 건설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단지가 소재한 용산지구는 계룡리슈빌 등 총 1600여 호의 민간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에 있고 분양성도 양호해 향후 사업지구 활성화가 전망된다.

또 개통 예정 터널(폭 14m, 길이 200m, 왕복 4차로)을 통해 광주 분선지구와 동일생활권이 됨에 따라 남구의 다양한 생활인프라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60~75% 수준이며 공급형태 전용면적은 29㎡, 46㎡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 주택



광주용산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관련 법규 개정으로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격이 완화돼 주거지원이 절실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약접수는 오는 7월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서미애 기자

첫 날인 9일에는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를 받고, 둘째 날인 10일부터 13일까지 일반공급 대상자들에 대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자격별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LH홈페이지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현장접수 장소(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9월28일이다. 신청자격, 청약절차, 모집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LH홈페이지)을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서미애 기자

### ◇지역기반의 멘토링 지원

광주·전남의 스타트업의 창업여건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 관련 사업정보와 제품 판로 및 마케팅, 투자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벤처연구소는 분석했다.

지역 기반의 멘토링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보니 멘토링 기회 부족해 지역 기반의 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전남지회는 지역 기반의 멘토링 지원체계를 구축(멘토링 지원센터 등)하고, 지역 멘토 발굴 및 양성을 지원하여 지역 내 스타트업에 멘토링 기회제공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 보해양조, 전라도 천년기념주 ‘천년에’ 출시

### 시민 1만5천여명과 함께 ‘소주맛잡다’

### 광주·전남에 매년 약 20억 원 기부 예상

지난 68년 동안 지역민과 동고동락해 해온 광주·전남 대표 주류기업 보해양조가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주 ‘천년에’를 마침내 선보인다. 보해는 시·도민과 함께 천년에 출시를 축하하는 풍성한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21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공모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주 ‘천년에’를 오는 24일부터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천년에”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주가 전라도민들의 자부심이 돼 앞으로 천년동안 사랑 받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용량은 360ml, 도수는 17.2도다.

지난 1950년 목포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68년 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성장해 온 보해양조는 그동안 사랑과 관심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전라도란 이름이 정해진 지 천년이 되는 뜻깊은 2018년을 기념하고자 기념주를 만들게 됐다.

광주전남 시민 1만5000여명이 함께 맛과 이름을 정한 천년에는 ‘불쾌한

소주맛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광주·전남 시민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들이 소주의 쓴맛과 알코올 향을 꺼려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소주의 부정적인 맛은 없애고, 좋은 술맛만을 남긴 것이다.

이를 위해 보해는 국내 어떠한 생수보다 마네랄이 풍부한 장성 천연암반수에 국내 1위 주정 회사인 창해에탄올에서 엄선한 최고 품질의 주정을 활용해서 천년에를 만들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주에 걸맞은 라벨을 결정하기 위해 광주출신 판화작가 정승원 씨의 작품을 소주 라벨에 도입했다.

독일 브레멘 국립 예술학교 통합디자

인과를 졸업한 정 작가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담양 죽녹원, 순천만 정원, 광주주전남도청 분수대, 보성 녹차밭 등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관광지 23곳을 형상화했다.

보해가 천년에 출시 준비 과정에서 가장 집중된 부분은 ‘시민의 참여’였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시도민과 함께 축하하며 이를 기념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해양조는 지난 2월 광주시·전남도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보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을 천년에에 사용하기로 하고, 기념주 한 병이 판매될 때마다

판매 매출의 2%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 제품 판매량을 근거로 추산했을 때 매년 20억 원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년이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고,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이끌기를 바라는 취지에서다. 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도 천년 기념주 천년에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유시민 이사는 제품 후면에 자필 서명을 보냈으며, 광고 포스터 제작에도 참여했다. 또한 지난 3월 박나래 북벌쇼에 출연해 “보해 천년 기념주가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소주가 되길 기원한다.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차별 받은 전라도가 정도 천년을 계기로 재조명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천년이 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태어난 소주인 만큼 감사의 의미로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기념 행사 ‘천년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부는 ‘전라도를 말한다’를 주제로 김광진 전 의원, 연출가 박강의씨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진행된다. 2부는 마마무, 김연자, 김구봉구, 밴드 남녀노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예정돼 있다.

천년에 페스티벌은 천년에 출시와 전라도 정도 천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광주·전남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은 천년에 페스티벌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이 주관하는 플라멩고 같이 열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전남 대표 주류기업 보해가 지역민이 자부심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천년 기념주 천년에를 출시하게 됐다”며 “광주·전남 시민의 바람을 담아 만든 천년에가 보해를 넘어 호남의 자부심이 되는 제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